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악화 심화... 보험료 인상 압박 커져

KB손보, 3분기 손익 24억 '적자'
삼성·DB·현대, 절반 이상 줄어

계절적 요인 더해 지속상승 예고
업계 "차보험료 인상 불가피"

손해율 상승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차보험손익은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차보험손익이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4곳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약 85%에 달한다.

대형 손보사의 차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을 기록한 곳도 나왔다. KB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 차보험손익으로 24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분기(20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은 327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947억원) 대비 65.5% 급감했다.

올 상반기 차보험손익 1위를 기록한 DB손해보험도 악화 흐름을 피하지 못



첫 피피티가 생성한 차보험손익 감소 이미지.

했다. DB손해보험의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은 1780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2650억원) 대비 10.7% 감소했다.

특히 3분기만 놓고 보면 DB손해보험의 차보험손익은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 830억원 대비 81.3%나 쪼그라들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포인트(p), 4.9%p 악화했다.

삼성화재의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은 1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2440억원 대비 33% 감소했다. 3분기 차보험손익은 140억원으로 전년 420억원 대

비 66% 급감했다. 삼성화재는 "누적된 보험 요율 인하로 보험손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으로 9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070억원 대비 53.9% 감소했다. 1분기 420억원, 2분기 400억원을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줄어들면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험업계는 차보험손익 급감의 원인으로 지속된 차보험료 인하를 꼽았다. '상생금융'이란 명목으로 인하했던 차보험료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는 분석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2022년 1.2~1.4%, 2023년 2~2.1% 인하했고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 차원에서 2.5~3% 보험료를 내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는 곧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이어진다"며 "자동차보험은 덩치가 커 보험사의 손익 측면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연말까지 손해율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보험손익 적자도 악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적자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라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손해율을 신경쓰겠지만 충분한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퓨처나인 8기' 기업 사업모델·성과 소개

KB국민카드가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KB국민카드는 '퓨처나인(FUTURE9) 8기'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 모델과 협업성과를 소개하는 '데모데이(Demo Day)'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퓨처나인 8기는 기존 연 1회 모집이 아닌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자는 취지다.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주요 협업사항은 ▲중소사업자위한 상품 광고 자동 생성 ▲KB페이 내 음원감상 포인트 적립 ▲고객 대상 리퍼폰 할인 프로모션 등을 소개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번 행사는 KB국민카드와 스타트업들이 지난 8년간 펼친 동반성장과 미래혁신에 대한 노력과 함께 프로그램 성과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사업담당과 진미경 신한카드 고객최고책임자(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SKT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인공지능 접목 MOU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사업담당 및 진미경 신한카드 고객 최고 책임자(CCO) 등을 포함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SK텔레콤의 AI 기술인 'FAME'를 도입한다. 위치와 이동 데이터, 전화·문자 수발신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이다. 금융사의 인증 체계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단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사와 통신사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보상 판정 및 스미싱 차단을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흥 부촌' 성동구... "당분간 핫플레이스 지속될 듯"

성동구 아파트 가격 9.54% 올라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
한강변, 도심 속 숲세권 충족 인기

서울 성동구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11월 둘째 주까지 9.54%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강남3구(▲서초 8.17% ▲송파 7.28% ▲강남 6.62%)를 뛰어 넘는 수치다.

KB금융이 한국부자의 현황 등을 분석한 '한국부자보고서'의 지난해 '서울 거주 지역' 항목을 보면 강남, 서초, 종로, 용산에 이어 성동구가 처음 부촌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성동구는 성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일명 서울숲 대장주로 불리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98㎡는 지난 7월 145억원에 거래돼 2024년 서울 아파트 최고 거래가 3위를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조감도.

/대림사업

기록했다. '트리마제'는 이달 전용면적 136㎡가 6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매매가격(59억원) 대비 5억5000만원 상승했다.

성수동은 과거 서울의 대표 준공업지대로 대형 공장부지에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곳은 카페와 음식점으로 리모델링되며 주목받는 상권이 됐다.

2024년 3분기 공실률은 3.4%로 전국 평균(12.7%)보다 크게 낮은 수치

다. 월세없이 전개되는 팝업스토어 등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아이보스가 2024년 상반기 677개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팝업스토어 오픈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 1위가 성수로 나타났다. 패션 잡화, 케이크, 식음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팝업의 성지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젊은 층이 몰리자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IT 스타트업 등이 들어섰고

코워킹스페이스로 변모했다. 이후 SM 엔터테인먼트, 디올, 무신사 등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며 어린 최고경영자(CEO), 외국계 임원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흥 부촌이 형성된 것이다.

서울숲이 조성돼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어 도심 속 숲세권을 충족하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9.4㎡로 전국 평균(12.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중 서울은 4.6㎡다. 서울의 낮은 공원 면적 비율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공포아파트' (공원을 품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성수동이 한강변에 위치했다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2호선 라인으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황병우 "뜰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이 필수"

(DGB금융 회장)

DGB금융그룹 경영진 워크숍

DGB금융그룹은 시중금융그룹 전환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황병우 DGB금융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DGB금융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중

금융그룹으로서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위한 2025년도 경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병우 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전 계열사의 전략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그룹이 직면한 경영환경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른 성장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계열사별 비

전과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내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도 다졌다.

전략회의 이후에는 '공정과 신뢰의 힘'이란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청 특강, 이진형 KT 상무의 '신기술(생성형 AI) 트렌드 및 인사이트' 주제 강연 등이 진행됐다.

황병우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별 전략과 재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겠다"며 "발빠른 디지털 전환 등 뜰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DGB금융